



무주군은 지난 2일 공영홍소핑 채널을 통해 무주반딧불사과의 맛과 품질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무주반딧불사과 홈쇼핑서 대박

## 2일 공영홍소핑 통해 8천여만 원 매출 성과

반딧불사과가 TV홈쇼핑에 진출했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영홍소핑 채널을 통해 사과 5,400여개를 판매(16톤)했으며, 8,000여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이날 판매된 사과는 3상자로 구성된 세트 상품(거래가 4만900원)으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영철)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이 공동으로 출하해 호평을 받았다.

50분 간 '반딧불사과' 방송을 진행했던 담당자는 "방송시간대나 시기가 사과재종을 팔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깜짝놀랐

다"며 "무주반딧불사과의 맛과 품질이 우수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가 홈쇼핑을 통해 소개가 되니 소비자들도 알아보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반딧불사과 홈쇼핑 진출은 전북도청과 무주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TV홍소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사된 것으로,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은 방송 송출료와 동영상 제작비 등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이영철 대표이사는 "사과 생산량의 증가와 소비 부진 상황이 겹치면서 판매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홈소

핑 판매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만큼 맛과 품질이 우수한 무주반딧불사과의 생산·판매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무주 반딧불 아로니아 분말 판매방송이 진행(14:20)될 예정으로, 무주군은 하반기에도 홈쇼핑 방송예산을 추가 지원해 반딧불사과 대박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김영중 마케팅 담당은 "홈쇼핑 진출이 무주반딧불사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며 "TV홈쇼핑 유통망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태권도, 관광과 만나다

## 무주군, 전통무예 체험여행지 선정

무주군이 전통무예(태권도) 체험여행지로 선정됐다. '전통무예 체험여행' 시범사업은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이번 선정된 전통무예 프로그램에 대한 작가·여행가 등의 전문가 컨설팅과 상품화를 위한 고품격 시범(파일럿)테스트, 국내·외 통합 홍보 등을 지원해 차별화된 체험여행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위대한 체인지(體變至)'의 시작'을 운영한다. 2014년 개원한 국립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태권도체험과 반디랜드, 덕유산국립공원, 머루와인동굴 등 지역의 관광명소들을 연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태권도원(실천면 무설로 1482 / 063-320-0114)은 특별히 봄 여행주간(4.28.~5.13.)을 맞아 무료입장과 숙박시설 개방,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학생 등 단체를 위한 실속



이벤트를 진행한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실천면 무설로 1324 / 063-324-1155)은 입장료를 20% 할인해 준다. 무주군 관계자는 "전통무예 체험여행을 통해 무주가 태권도의 고장으로 제대로 인식되고 태권도와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매력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주말 나들이는 장수누리파크로"

## 오는 13까지 오토캠핑장 20% 할인

장수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봄 정취에 맞는 다양한 꽃들과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장수누리파크를 새롭게 정비하고 방문객을 맛을 준비를 마쳤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총 9만 2,169㎡ 부지에 조성된 장수누리파크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밭·홍보전시관·오토캠핑장·분수대·식당 등이 있어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특히 봄 여행주간(04.28~05.13)을 맞이해 샤워장·취사장·화장실 등이 구비된 오토캠핑장의 경우 이용요금의 20%를 할인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조성된 장수누리파크는 장수군 농특산물인 레드푸드(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를 테마로한 체험·휴양 관광시설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개장 이래 약 3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장수누리파크 및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장수누리파크(063-352-56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총 9만2,169㎡ 부지에 조성된 장수누리파크를 새롭게 정비했다.

## 진안홍삼축제추진위, 대구한방문화축제 다녀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유경중)는 지난 4일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이어 두 번째 벤치마킹지로 대구광역시 한방문화축제에 다녀왔다.

이번 벤치마킹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홍삼컨텐츠, 운영총괄, 살머거리 분과 위원들과 홍삼연구소, 전북인삼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벤치마킹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유경중 추진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펼쳐지는 제14회 대구광역시 한방문화축제"는 현 문체부 유망축제로 건강을 테마로 한 축제라는 점에서 진안홍삼축제와 유사하고, 1978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한방문화축제를 벤치마킹한 추진위원들은 대구 동성로 약령길을 중심으로 약령산책길, 평바람길, 한방문화길 등의 다양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축제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위는 대구한방문화축제의 한방족욕, 테마한약재 전시 등 다양한 체험을 벤치마킹하여 진안홍삼축제에서 홍삼사포닌 버블탕과 마이산을 바라보며 하는 홍삼 족욕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진안홍삼축제는 바쁜 일상 속 현대인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추진위원들은 "올해 더 완성도 있는 홍삼축제를 만들기 위해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다"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홍삼축제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즐거라 진안! 미셔라 홍삼! 달려라 정춘!'을 주제로 마이산 북부에서 개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군,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무주군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사업이 준공된 후 발생한 잔여지 등 행정재산이 실수요자에게 대부·매각될 수 있도록 현황화하는 것으로 군유지 1만8,403필지, 행정재산 1만7,561필지, 일반재산 842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군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인과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예정으로 관리대상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과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농촌여성 안전보조구 지원 '호응'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환경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발농사가 많은 진안군은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수확용 앞치마와 농작업 모자, 보호안경 등 4종을 11개 읍면회장을 통해 300여 회원에게 지원했다.

군은 보조구 지원을 통해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유관기관 돌발해충 방제대책 협의회 개최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지난 4일 과수특작연구과, 산림녹지과, 읍면산업담당,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농작물 1년생 가지에 산란해 어린 가지를 고사시키고, 약충과 성충은 가지와 잎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생장을 방해하고 그들을 병을 유발시키는 등 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군은 중점방제 기간을 5월 17일~5월 31일까지로 결정하고 농경지와 산림의 지역별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 협업방제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로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 밀도를 줄여야하며 중점방제시기에 지역 작목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제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